

“고용불안 보다 활용 가치 커… 역량 강화 돕는 부조종사”

MS, AI시대 2023 업무동향지표
반복적 업무 줄이고 창의성 높여줘
AI 통해 업무능력 올리는 3가지
디지털 부채·동맹·AI적성 등 필요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 가져 올 것



이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MS 제공

한국 근로자 절반이상이 AI로 고용 안정성을 우려하면서도 업무는 AI가 맡아주길 기대했다. 사람과 AI의 융합이 업무 효율을 올려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MS 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동향지표 2023(WTI 2023)을 발표하고 AI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업무동향지표 2023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집계된 수 조개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 시장 트렌드를 분석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은 이날 화상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AI는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창의성을 높여 줄 것이다”라며 “AI 기반의 도구들은 디지털 부채(Digital Debt)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AI 적성

과 역량 강화를 돕는 등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AI를 통해 업무능력을 올리는데 중요한 3가지를 공개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디지털 부채 ▲새롭게 등장한 AI근로자 동맹 ▲AI적성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다.

WTI 2023에 따르면 근로자 62%는 정보 검색,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창작이나 숙고, 사회적 협업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64%(한국 62%)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런 근로자들은 혁신과 전략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3.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365(Microsoft 365) 앱 사용 패턴(행일)을 보면,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57%, 창작 업무에 43%의 시간을 소비했다.

이후 AI 발전에 뒤따라오는 화제 중 하나는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전언했다. 한국 관리자들도 34%의 높은 비중으로 AI의 가치를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는 인력 감축(18%)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그러면서 AI의 발전은 사람과 컴퓨터 간 새로운 상호 작용 모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AI가 단순히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조직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이 AI와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업무동향지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미 AI가 업무에 주는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AI는 업무를 돕는 부조종사로서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가져와 직원 개인의 창의적 업무를 돕고 나아가 조직의 성공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Microsoft 365 Copilot) 및 마이크로소프트 비바(Microsoft Viva)의 신규 기능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AI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지난 3월 공개하고 세브론, 제너럴 모터스 등 20개 기업과 이를 테스트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선별된 고객

사 600곳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제공, 더 많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MS는 AI 기반 ‘MS 365 코파일럿’ 서비스를 선별된 기업에게 제공한다. 아직 한국어 지원과 일반 사용자 대상 서비스 일정은 미정이다.

오성미 모던 워크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어에 대한 지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글 인식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발표되는 소식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MS 365 코파일럿’ 서비스는 기업 고객용이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파일럿은 MS 서비스 사용자의 ‘AI 비서’ 역할을 한다. 코파일럿은 팀즈(Teams), 파워포인트(PowerPoint), 아웃룩(Outlook), 원노트(OneNote), 루프(Loop), 비바 러닝(Viva Learning) 등에 추가됐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농장서 식당까지… SKT, ‘식품 밸류체인’ 혁신

에스푸드홀딩스와 푸드테크 협력
농축산물 생산·가공 등 AI 접목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 시너지 확대

SK텔레콤이 종합식품기업 에스푸드홀딩스와 AI(인공지능) 기반 푸드테크 기술 개발에 나선다.

SKT와 에스푸드홀딩스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물류·판매·추천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 밸류체인(Value Chain) 전방위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에스푸드홀딩스 조성수 대표, 김민정 스마트푸드네트웍스 대표, 이승연 메디솔라 대표 등 에스푸드 관련 경영진과 이종민 미래R&D담당, 양승지 Vision R&D 담당, 최낙훈 Industrial AIX CO 담당을 비롯한 SK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스푸드홀딩스는 존코델리미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식품제조기업 에스푸드를 비롯 콜드체인 풀필먼트 및 외식 식자재 커머스 업체 스마트푸드네트웍스, 메디컬 푸드테크 기업 메디솔라

등을 보유, 식품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SKT와 에스푸드홀딩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T의 AI 기술을 에스푸드의 농장에 적용, 사육환경과 가축 행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한편, 비전 AI와 IoT 센서를 활용한 사육 환경 모니터링, 최적의 사료배합 비율 분석 등 협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물류센터 자동 입고 및 분배 시스템 구축, 트럭 운송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등에 로봇 및 비전

AI 기술을 적용하고, 식자재 수요 예측 및 자동 발주 시스템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SKT는 메디솔라가 진행중인 질환 맞춤형 식단(메디푸드) 연구에 AI 기술을 접목해 개인의 질환·체질·특성과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식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I-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분야로도 양사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수 에스푸드홀딩스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에



조성수 에스푸드홀딩스 대표와 이종민 미래R&D담당이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SKT

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KT, 로봇 분야 등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초격차 1000+ 프로그램 민간검증’ 트랙서 KT 지원 5개사 최종 선발

KT가 중소벤처기업부·한국표준협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로봇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민간검증’ 트랙에 참여해 KT와 협업하고 있

는 5개사가 최종 선발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첨단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0대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사를 발굴하기로 하였고 올해 150개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

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에게는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수요에 따라 최대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사업 등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AI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애플리스) 리벨리온은 KT가 2022년 7월초 300억원 규모의 전략투자를 했고 리벨리온에서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아름’을 KT IDC에 적용예정이며 KT에서 개발 중인 초거대 AI서비스 ‘믿음’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모래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KT가 2021년 전략 투자를 진행한 이후 AI 학습용 클라우드 서비스, 초거대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래벌업은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백엔드닷에이아이(Backend.AI)’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KT에서 개발 중인 초거대 AI서비스 ‘믿음’의 서비스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리벨리온과 모래 등과 함께 한국형 AI반도체 풀스택을 위한 동맹을 구축해 AI산업 공용인 엔비디아에 대한 국내 AI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고 대한민국 AI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24일까지… 불응 과태료 최대 1억
▲ 늘어만 가는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검사 인력은 태부족 /사진 뉴시스

▲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 전 세사기 첫 사례
▲ 서울시, ‘유망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영등포구, 반지하 1236가구 주거 상황 지원
▲ 서울 지하철역, 얼마나 붐비나… AI로 혼잡도 산출 /사진 뉴시스